

## 이미지, 정치, 그리고 역사: 근대일본제국의 만화저널리즘을 중심으로

한정선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일본의 시사 만화의 경향은 합병 전과 합병 후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합병 전에 다루어진 내용은 한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합병 후는 중국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물론 국내를 소재로 하는 풍자 만화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큰 틀에서 파악을 한다면 풍자 만화는 국내적으로 민간 사회차원에서 비판이 있었지만,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국가 정책이 크게 다른지 않았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국가로부터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기겠지만, 일본 사회에서도 제국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를 읽을 수 있는 자료가 있다.

민간 사회차원의 비판의 예로서 일본 사회에 대한 비판을 그린 목판화 그림을 보면, 화장실을 배경으로 하여 사무라이나 일반 사람이나 똑같이 냄새가 난다는 내용으로 사무라이의 권위를 풍자하고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그림은 일본의 대외정책에 관한 것을 소재로 하고 있다. 낚시터의 그림을 보면 낚시를 하는 사람은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옷차림은 러시아, 일본, 중국을 표현하고 있고 이들 사이에서 한국은 물고기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비현실을 과장하고, 생략하는 만화의 기법이 아시아의 국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닭을 잡는 닭 집을 배경으로 닭을 잡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청일 전쟁 이후 그려졌고 짧은 대화도 담겨져 있다. 여기서 닭 잡는 주인은 일본을 의미하고 돈이 없어서 다음에 오겠다는 고객들은 청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은 닭으로 묘사되어 있다. 여기서 한국을 닭으로 묘사한 것은 부정적 이미지보다 약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그림은 청에 대한 경고로서 지금은 이 칼이 닭을 잡지만 언젠가 돼지(청)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일본의 근대 계몽사상가였던 후카자와 유키치는 신문과 만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신문을 만

들게 되었다. 이 신문을 통해서도 시사 만화가 많이 나왔는데, 소재로는 당시의 청일 전쟁을 소재로 하였다. 이 때 한국은 보호 대상이 되고 일본이 서구식 군대를 의미하는 총으로 청나라 사람을 쏘는 그림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청일 전쟁으로 일본이 승리하기 전까지는 청은 잠자는 사자로 묘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본이 청을 전쟁으로 이긴 후 청은 잠자는 돼지로 표현되기 시작하였고, 다른 특징으로 청나라 사람을 표현하는데 있어 손톱이 긴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청나라 사람의 게으름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1910년에 들어서면 동물화 이외에도 한일 관계를 남녀 관계로 표현하기도 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같은 일본의 과거 영웅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한국을 일본이 발달된 문명으로 인도한다는 내용도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서 어둠에 있는 조선을 일본 사람이 동굴의 문을 열어 광명을 준다는 그림이다. 여기서 일본 사람은 만화에 의해 대머리로 특징지어졌는데 이 사람은 일본의 초대 조선 총독인 테라우치(대머리)를 그린 것이고, 동굴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빛은 아마테라스에게서 나오는 빛, 즉 일본인 조선 총독이 조선에게 광명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문명을 상징하는 기차를 테라우치가 운전하는 그림, 넥타이를 맨 일본인이 동양평화라는 짐을 지고 있는 그림 등이 있다.

또한 한일관계를 남녀관계로 묘사하는 그림이 등장하는데, 남자, 즉 보호하는 입장은 일본이고, 보호받는 여자는 한국을 나타내면서 부부로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남녀 관계를 나타내는 다른 그림으로서 흰 색의 속옷을 입고 있는 한국 여성의 그림이 있는데, 흰 색의 속옷을 일본이 색을 입히기 나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시사만화의 트렌드로서 과거의 영웅이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이토 히로부미가 도요토미를 저승에서 만나는 그림이 있다. 이 장면에서 히로부미는 답을 들고 히데요시를 만하는데 이 답은 조선을 의미하고 합일합방은 필연적이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현 주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험한류라는 만화를 들 수 있다. 이 책은 인터넷에서 연재된 것이 책을 만들어진 것인데, 스토리 전략은 다음과 같다. 남자 주인공이 일본이 잘 못 했다라고 생각하며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잘 못이 아니라 근대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놀라는 것이다. 이 만화의 토론 장면에서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의 묘사가 다르게 나오는데 일본 학생은 이지적이고 예쁜 여학생이 등장하고 한국 학생의 특징으로는 광대뼈, 다혈질의 한국 남자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이미지는 영향력이 있고 독자 편지로 응어리가 풀린다는 소감이 있었다고 한다. 앞으로는 시각 영상의 힘이 커지게 되므로 자료 수집 역시 잘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